

소비자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의류제품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분석*

Consumer's Pro-environmental Behavior Relating to Clothing by the Style of Purchase Behavior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허경옥**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Professor : Huh, Kyun-Gok

<Abstract>

On this research, it was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s in purchase, use a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clothing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ther variables. In addition, it was classified Korean consumers into several consumer groups based on the different purchase behavior style, and then investigated the difference among these consumer groups in purchase, use a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clothing in light of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main results.

First, consumers with high income and having a lot of clothing were less likely to purchase used-clothing, while consumers who were non-married and in low-income status were more likely to rent clothing. In additions, female, married consumers, and consumers with less-educated were more likely to manage their clothing frequently.

Second, it was classified consumers into several groups based on the different purchase behavior style, these were "rational purchasing", "saving-money purchasing", "regretting for their purchasing", and "over-purchasing".

Third, "saving-money purchasing" group showed a high expenditure rate in the purchase of used-clothing, but a low rate in "over-purchasing" group. The frequency of management of clothing was the highest in the group of "over-purchasing" and the next in the group of "saving-money purchasing". The group of "over-purchasing" were more likely to show irrational decision-making style, manage and disposal their clothing frequently, "saving-money purchasing" purchased used-clothing frequently, and the level of management of clothing were less in the group of "regretting for their purchasing"

▲주요어(Key Words) : 구매행동유형(purchase behavior style), 의류 구매·사용·처분(purchase, usage and disposal of clothing)

* 이 논문은 200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허경옥 (E-mail : kohuh@sungshin.ac.kr)

I. 서 론

최근 쓰레기 중 의류를 포함한 섬유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류를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고 있어 토양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생산되는 많은 의류의 섬유 조성이 쉽게 분해되지 않는 합성섬유가 많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최근 의류는 섬유의 조성이 천연적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합성섬유가 많은데, 매립할 경우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토양오염 문제를 일으킨다. 합성섬유 의류를 매립할 경우 나일론은 30~40년, 가죽은 25~40년이 걸리며, 조각시킬 경우 염산과 같은 유해가스 발생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게 된다(김병미·이재명, 1997). 의류제품의 경우 낡거나 헤어져, 즉 수명이 다해서 처분하는 경우보다 신상품 구입, 유행변화 등의 이유로 단기간 사용 후 쉽게 버리므로 환경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의류의 과다소비, 대중매체의 유행정보 전달 등으로 인해 의류의 수명은 매우 짧아지고 있다. 실제로 가정에서 착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옷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특정 계층이 아닌 전 소비 계층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유명희·안혜자, 2001). 유연실(1996)의 연구에서는 의류폐기의 가장 주된 원인이 새로 구입한 의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유행 변화, 싫증, 착용기회 상실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류선택에 대한 후회로 의류폐기가 일어나는 것이 전체 의류폐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류구매의 효율성, 의류의 효율성 사용 및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 많은 의류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가계경제에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의류의 재활용을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켰고, 의류의 재활용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의류의 재활용 및 처분 등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은 다른 소비 제품에 비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의류의 환경친화적 소비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 기업 윤리도 중요하나 소비자의 구매행동 및 책임 있는 사용과 처분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의류 구매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효율적인 소비자선택을 유도하여 의류제품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시월 등(1998)은 사장의류의 원인을 조사한 바 의류 자체 및 체형 변화, 유행충실, 의류과다 순서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소비자의 유행추구 및 비합리적 의류 구매행동은 의류의 과소비 촉진, 즉 사장의류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의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의류제품의 구매행동이 어떤 형태인가는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생활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의류 관련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사용, 처분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는데, 의류의 소비생활과 환경을 연결한 선행연구는 주로 의류학과 소비자학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사장 의류에 대한 연구, 의류 재활용에 대한 연구, 의류와 환경과의 관계 연구(주로 환경의식이 의류 재활용 및 구매영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처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의류폐기 원인, 사회 책임적 의류 소비, 의류처분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의류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 소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과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행동과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류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구매, 사용 및 관리행동, 처분행동이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및 의류 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류구매행동을 유형화시켜 소비자 집단을 분류 한 후 분류한 소비자 집단의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의류 구매행동, 사용 및 관리, 의류재활용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류의 구매, 사용, 처분 등 소비생활 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의류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친화적 의류관련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의류제품구매행동유형이 환경친화적 소비행동과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행동 유형의 의미를 조명하고 이를 근거로 친환경의류소비 생활에 대한 개념, 방법, 응용 등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자 구매행동유형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비자 구

매행동의 유형화, 유형화된 구매행동유형과 소비자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 파악 연구 등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구매행동을 유형화시키는 연구는 크게 쇼핑성향 접근, 정보처리모델 접근, 라이프스타일 접근, 구매 관련 의사결정 스타일 접근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 쇼핑성향 접근을 응용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특정 제품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쇼핑성향을 응용한 연구와 특정 제품에 국한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의류제품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자명과 이명희(1999)는 의류제품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집단에 따른 의류쇼핑성향을 구분한 결과 5개 요인, 과시적 쇼핑성향, 탐색적 쇼핑성향, 쾌락적 쇼핑성향, 중독적 쇼핑성향, 독자적 쇼핑성향으로 나타났다. 신수연과 박재옥(1999)의 경우 쇼핑향유, 상표충성, 쇼핑자신감, 실용성, 계획성, 동조성을 의류쇼핑 성향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정보처리 접근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분석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Westbrook과 Fornell(1979)은 내구재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자들이 사용한 정보원천을 기준으로 객관적 구매자, 소극적 구매자, 점포 집중적 구매자로 구분하였다. 한편, 소비자의 소비자의사결정 스타일에 초점을 두고 구매행동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Sproles(1985), Sproles, Kendall(1986)에 의해 시작되었다. Sproles와 Kendall(1986)은 소비자의사결정 유형 측정 척도(CSI: Consumer Style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이는 상표의식, 유행의식, 습관적, 상표충성형, 패션 지향형 등이다. Shim과 Koh(1996)는 가치 지향적 유형, 브랜드 지향/비경제적 유형, 무관심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시월, 박배진(2003)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가격가치의식, 세일추구, 가격품질 동일 인식, 편리추구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를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론적 접근, 제품별 특성, 관여도, 정보탐색 등 다양한 기준이나 초점에 따라 유형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유형을 연구목적,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함으로써 구매행동을 분류하는데 통일된 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2.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생활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은 소비생활의 전 단계를 포괄하여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최근 소비자의 처분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환경 친화적 제품 구매 및 선택 측면, 즉 구매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원을 고려하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책임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Hawley(2000)는 의류재활용이 경제적으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많은 양의 의류가 재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류 재활용 시스템을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의류재활용에 대한 네 단계의 관점은 개인 차원 또는 미시적 차원의 협상으로 자기 자신과의 협상(individual negotiation with self), 그리고 타인과의 협상, 거시적 차원으로는 의류재활용 시스템(textile recycling system arbiters)으로 경제적 이익이던 아니던 간에 비즈니스(business) 차원의 시스템과 문화적 재활용 시스템(cultural system arbiters)으로 구분하였다. Francis 등(1995)은 의류가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의류 재활용의 잠재성은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국에서 1개월 동안 기준된 의류 25만 톤의 처리 상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약 절반(51%)이 봉제 등 관련 산업(rag industry)으로 판매, 36%는 소비자에게 재판매(주로 thrift store로), 4%는 재기증, 3%는 매립, 3%는 재활용, 3% 기타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기준된 의류가 대부분 관련 산업으로 재판매되고(13만 8천 파운드), 겨우 7천 파운드만이 재활용됨을 밝히면서 소비자의 의류 재사용이나 소비자에게 의류 재판매의 확대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의류 제품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과 관련하여 구매, 사용, 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류 구매행동을 살펴보자. 김병미와 이재명(1997)은 의류가 점차 단기간 사용, 단순 소비재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집에 소장하는 의류 수가 많아지고, 입지 않는 사장되는 의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착용하지 않을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 후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 노력, 장소의 비용은 매우 크며, 이는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결국, 다른 폐기물에 비해 재활용 가능성이 큰 의류가 효율적으로 구매, 사용, 처분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합성섬유 개발 등 의류재료의 풍부함과 다양화 그리고 대중매체에 의한 빠른 정보전달, 의류 산업 발달 및 의류 마케팅의 고도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류가 기능성 보다는 유행에 뒤처짐, 실증 등 심리적 이유 의류 과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고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의류 분야의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김용숙, 1995).

김병미와 이재명(1997)은 착용하지 않는 의류의 처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착용하지 않는 의류의 근원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의복을 구매할 때부터 환경을 생

각하는 태도를 갖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숙(1995)은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의 계획구매, 환경마크상품 구매, 중고의류 구매는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석혜정과 김인숙(2005)은 환경의식과 의류태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이 의류에 대한 태도에서 정숙성, 편안성, 경제성 측면에서 의식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유행이나 신분 상징성과 동조성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소비자의 환경행동과 의류제품 구매행동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로서 구매단계에서의 구매행동 유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이춘희(1995)는 의류관리행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식 및 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환경의식과 행동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환경과 관련된 소비자의 의류관리행동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관리행동 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중고의류시장 참여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숙 등(2001)는 성인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의 세탁관리 행동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 여가/가족 지향집단의 환경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재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의류 재활용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 의류처분 행동의 동기 분석, 환경의식이 의류 재활용 행동에 미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병미와 이재명(1997)의 연구에서 남이 준 옷을 입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약 2/3, 헌옷 구입 경험은 1/3 정도로 나타났고 대부분 입지 않는 옷을 친지나 이웃에게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착용하지 않은 의류의 처리과정에서 소비자의 애로사항은 물려 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많았고, 기탁이나 물물교환 시장을 이용할 줄 모른다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박광희(1998)의 연구에서 의류처분행동의 한 유형인 기증의 경우 환경보존적 동기에 의한 기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선적 동기에 의한 기증으로 나타났다. 무인식적 처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혜(1996)는 의류처분 행동을 경제적 처분과 이타적 처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타적 의류처분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으며, 기혼자, 그리고 비인적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소비자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의류 구입에 호의적일 수록 경제적 처분행동에 긍정적이었고, 의류재활용 태도는 이타적 처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의와 안혜자(2001)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의류재활용에 대해 조사한 바 주부들의 의류재활용에 대한 태도는 높은 수준이고 의류를 기증하겠다는 태도는 높으나 기

증 받은 의류를 입겠다는 태도는 낮아 실질적으로 의류재활용 행동수준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고의류 구입과 재활용 코너 이용 행동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영래와 김시월(2002)은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재활용의식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경의식과 재활용의식이 사장의류의 재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화순, 서영숙(1998)은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의생활 행동과의 관련성 연구에서 환경의식행동 중 재활용과 분리수거행동, 환경의식 및 환경보호실천행동은 의류의 구매, 관리, 처분의 환경친화적 의생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과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행동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의복의 소비생활과 환경을 연결한 선행연구는 사장의류에 대한 연구, 의류 재활용에 대한 연구, 의류소비생활과 환경과의 관계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과 의류의 환경친화적 소비와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과 환경 친화적 의류소비 생활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자.

김병미와 이재명(1997)은 착용하지 않는 의류의 처리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의류 폐기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환경보존을 위한 의생활 관리 지식이 낮은 편이고, 의식과 달리 실제 환경친화적 의류처리행동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의식과 실제 환경행동 간에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 단계에서 환경친화적 행동,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 '아나바다' 운동 및 알뜰바자회 등 중고의류시장 확대, 중고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고 전환, 섬유개발 업체들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섬유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광희(1998)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과 환경보전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정보접촉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과 환경보전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허경옥(2004)은 특정제품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소비자 구매행동 유형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김시월 등(1998)은 사장의류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의류 분야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소비 및 충동구매 그리고 과소비비행향을 근절하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구매행동, 기업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환경 및 재활용 기업정책, 예를 들면, 옷감의 성분 선택,

디자인, 세탁과 보관을 고려한 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영래와 김시월(2002)은 사장의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류에 대한 소비자 가치관 전환, 재활용센터나 의류임대, 알뜰 시장의 활성화, 기업의 경우 중고 자사제품 보상 판매, 구제품과 신제품의 코디 방법 제공, 진부적 유행을 감안한 의류 제작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의류제품의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사용, 처분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류소비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한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분류한 후 이들 집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의류 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셋째,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구분한 소비자 집단이 의류의 환경친화적 구매, 사용 및 관리행동, 재활용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20세 이상 남녀 소비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다양한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행동을 다루고 있으므로 조사내용은 구매, 사용, 처분 단계의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의류 관련 구매행동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예비조사는 2004년 6월부터 2주간 20명의 기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적절치 못한 문장이나 표현, 애매한 내용 등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9월, 1달간 실시하였다.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1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방법

의류 구매단계에서 소비자의 친환경적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의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비합리적

구매성향, 중고의류 구매, 의류 빌림 행동이다. 여기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구매성향은 4개 질문, 즉 구매의 계획성, 과다구매 정도, 구매후회, 충동성의 합(5점 리커트)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중고의류의 구매성향과 의류를 빌려 입는 대여성향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은 응답자들이 옷을 어느 정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가를 7개 항목,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7개 질문은 '철이 지난 옷은 세탁이나 드라이를 해 깨끗이 보관한다.' '나는 자주 다림질을 한다.' '옷의 관리 상태를 늘 점검한다.' '좀약 등 옷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옷장을 자주 정리한다.' '외출을 위해 미리 손질을 해 둔다.' '유행 지난 옷은 수선을 해서 입는다' 이다. 끝으로, 의류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은 세 가지 측면, 즉 의류 재판매, 재활용, 폐기 행동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안 입는 옷은 주로 판매한다.' '안 입는 옷은 재활용한다.' '안 입는 옷은 주로 버리는 편이다' 의 3개 질문,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의류 관련 특성(의류지출액수, 의류 소유 개수),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 환경친화적 의류 사용 및 관리행동, 환경친화적 의류 처분행동에 대해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였다. 소비자의 친환경적 의류구매, 사용 및 관리, 처분행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의류 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χ^2 test)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이때, 분산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후 검증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소비자의 의류구매 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구매행동유형을 구분할 것으로 사료되는 질문을 가지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다음 단계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에 대해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한 후 유사한 의사결정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그 후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분류한 소비자 집단이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의류 관련 특성, 그리고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 사용 및 관리행동, 처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과 t 검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남성의 경우 45%, 여성의 경우 약 55%이며, 조사 대상자의 절반은 기혼, 나머지 절반은 미혼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의 경우 평균 298만원으로,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사대상자 중 약 19%,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약 22%,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23%,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27%,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9%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평균 33세로 20대가 약 6%, 30대 23%, 40대 9%, 50대 7%로 나타났다. 학력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 19%는 고졸이하, 75%는 대졸, 7%는 대학원

졸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4%는 취업하지 않았으며, 46%는 취업한 소비자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소비자들이 의류를 몇 개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정장의 경우 약 4벌, 외투 약 6개, 캐주얼 상의 약 19개, 캐주얼 하의 약 11개로 나타났다. 가계총지출의 경우 한달 평균 약 218만원, 의류 지출의 경우 한달 평균 약 22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합리적 구매성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매의 계획성, 과다구매, 구매후회, 충동구매의 경우, 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충동구매성향과 계획구매 성향이 평균 3.0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다구매, 구매후회의 경우는 평균 2.8에서 2.9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고의류 구매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1.53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김용숙, 1995; 이춘희, 1995; 유명한·안혜자, 2001)들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서 옷을 빌려 입는 의류 대여 성향을 조사한 결과 평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212)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자	95 (45.02)	기혼여부	미혼	129 (50.0)
	여자	116 (54.97)		기혼	128 (50.0)
소득 (한달평균, 만원) (M=298.45) (S.D.=223.77)	100만원 이하	29 (18.70)	연령 (M=33.44) (S.D.=9.72)	20~29세	129 (60.8)
	101~200만원	34 (21.93)		30~39세	48 (22.6)
	201~300만원	36 (23.22)		40~49세	20 (9.4)
	301~500만원	42 (27.09)		50세 이상	15 (7.1)
501만원 이상	14 (9.03)				
취업여부	비취업	115 (54.24)	학력	고졸이하	57 (27.80)
	취업	97 (45.75)		대졸	135 (65.85)
				대학원졸	13 (6.34)
변수	평균	S. D.	변수	평균	S. D.
소유한 의류갯수			가계 지출 (한달평균, 만원)	217.85	88.77
	정장	3.81		3.57	
	외투	6.29	8.29		
	캐주얼상	18.53	14.08		
캐주얼하	10.86	9.90			
구매행동	비합리적구매		의류비 지출 (한달평균, 만원)	22.41	21.49
	구매 계획성	3.02 (.93)			
	과다구매	2.94 (.96)			
	구매후회	2.80 (.80)			
	충동구매	3.04 (1.03)	세탁/드라이보관	3.42 (1.10)	
	중고의류 구매	1.53 (.76)		다림질	2.83 (1.12)
의류대여	1.56 (.74)	관리상태 점검	2.24 (.91)		
처분행동	재판매	1.54 (.85)	변질 방지 조치	2.95 (1.24)	
	의류재활용상자	2.59 (1.26)	자주 정리	2.60 (.93)	
	친지/남에게 줌	2.52 (1.11)	미리 손질	2.75 (1.14)	
	자선기관 기부	2.26 (1.12)	수선	1.96 (.96)	
	폐기	2.83 (1.14)			

참조: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에 따라 표본 수에 차이가 있음.

군 1.56으로 중고의류 구매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옷을 대여하거나 중고 의류를 구매하는 성향은 매우 낮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을 조사한 결과 드라이/세탁 행동 수준이 평균 3.42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행동은 대부분 5점 만점에 평균 3.0 이하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선이나 관리상태 점검의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처분행동 중 폐기행동은 5점 만점에서 평균 2.83으로 가장 높았고, 재판매행동은 1.5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대체로 의류 처분의 경우 의류 재활용 상자 이용이나 친지, 남에게 주는 경우가 많고, 자선기관 기부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폐기행동을 재판매, 재활용 행동으로 전환시킬 여지가 또는 많음을 알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사용 및 관리, 처분행동의 차이 검증

소비생활의 3단계인 구매, 사용 및 관리, 처분단계에서 소비자의 친환경적 의류 소비생활이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의류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과 분산분석(ANOVA), 사후 검증 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의류 구매의 친환경적 행동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고의류 구매, 빌려 입음, 비합리적 구매성향을 조사한 후 이들이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지출 및 의류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의류 구매성향은 가계소득과 소유한 의류 갯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 집단에 비해 중고 의류를 가장 적게 구매하고 있었고, 100만원 이하의 소득 집단이 중고의류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고의류 구매는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쉽게 알게 한다. 한편 옷을 41개 이상 소유한 경우 41개보다 적게 소유한 경우보다 중고의류 구매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옷을 빌려 입는 의류대여행동의 경우 결혼여부와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자주 빌려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장 많이 빌려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 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적게 빌려 입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

과를 통해 중고의류 구매행동과 대여행동은 다분히 경제적 동기에 의한 행동임을 추측케 한다. 한편, 소비자의 비합리적 구매성향은 성별과 의류소유 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합리적 구매성향이 높았고, 의류를 가장 많이 소유한 집단, 즉 51개 이상 소유한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구매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지금RK지 연구결과를 비교 할 때 중고의류 구매와 대여행동과는 달리 비합리적 구매성향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소비자의 비합리적 성향이 소비자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행동임을 보여준다.

한편,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을 7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후 이것이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지출 및 의류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은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계소득, 가계지출, 의류지출액수, 소유한 의류 갯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여성, 기혼자,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소비자의 의류사용 및 관리행동은 남성, 미혼자,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소비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의 경우 40대가 의류 사용 및 관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다음이 50대 이상 연령 소비자였으며,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장년층이 의류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소비자들은 그 반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수준의 경우 501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계, 가계지출이 201만원 이상인 가계, 한달 평균 의류지출액수가 가장 높은 수준인 51만원 이상인 가계, 소유한 의류 개수가 40개가 넘는 경우 소비자의 의류 사용 및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이 소득, 가계지출, 의류지출액수, 소유한 의류 수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이 지출을 요구하는 즉, 경제적 특성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탁소, 가사 도우미 등 유료 서비스 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소비자의 의류 처분행동을 재활용, 재판매, 폐기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이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지출 및 의류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소비자의 의류 재활용행동 수준은 여성, 기혼 소비자, 고졸 이하의 학력 소비자, 20대보다는 30대 이상 소비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성 소비자, 학력이 높은 소비자, 20대 소비자의 재활

<표 2>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사용/관리행동의 차이 검증

변수	구분	중고의류 구매			의류 대여			비합리적구매성향			사용/관리 행동		
		평균	t/F값	D	평균	t/F값	D	평균	t/F값	D	평균	t/F값	D
성별	남성	1.56	.72		1.62	1.03		8.24	-3.72 ***		17.06	-4.77 ***	
	여성	1.49			1.51			9.22			20.20		
결혼 여부	미혼	1.52	.07		1.63	2.19 *		8.80	.30		17.88	-5.26 ***	
	기혼	1.51			1.36			8.71			21.71		
취업 여부	취업	1.53	.04		1.55	-.32		8.70	-.60		18.33	-1.38	
	비취업	1.52			1.58			8.86			19.28		
교육 수준	고졸이하	1.51	-.08		1.58	.18		8.94	.62		20.89	2.93 **	
	대졸이상	1.52			1.56			8.73			18.39		
연령	18~29세	1.50	.56		1.61	1.85		8.78	.01		17.90	11.71 ***	a
	30~39세	1.68			1.50			8.81			19.06		ab
	40~49세	1.65			1.60			8.80			24.05		c
	50세 이상	1.40			1.13			8.66			21.57		b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1.78	1.98 *		1.85	2.31 *		9.27	.63		18.48	3.18 *	a
	101~200만원	1.48			1.72			8.58			18.20		a
	201~300만원	1.64			1.52			8.58			18.22		a
	301~500만원	1.50			1.61			8.83			19.54		b
	501만원+	1.26			1.30			8.64			21.15		c
가계 지출	100만원 이하	1.56	1.16		1.57	1.32		8.70	.53		18.07	3.39 *	a
	101~200만원	1.37			1.54			8.94			19.75		a
	201~300만원	1.28			1.21			8.42			22.07		b
	301만원+	2.00			2.00			7.50			21.50		b
의류 지출 액수	10만원 이하	1.64	1.81		1.46	.70		8.53	.83		18.85	3.32 *	a
	11~20만원	1.24			1.66			9.21			18.81		a
	21~30만원	1.38			1.72			9.05			18.22		a
	31~50만원	1.37			1.50			8.50			18.42		a
	51+	1.28			1.71			9.00			20.06		b
의류 소유 갯수	20개 이하	1.75	5.75 ***		1.67	.80		8.61	3.59 **		18.13	3.60 *	a
	21~30개	1.60			1.66			8.38			18.95		a
	31~40개	1.72			1.54			8.40			18.14		a
	41~50개	1.14			1.38			8.95			19.57		b
	51+	1.22			1.48			10.04			19.27		b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참고: 중고구매, 빌려입음은 1개 문항, 비합리적 구매성향은 3개(충동성, 후회, 과다구매), 5점 리커트 척도.

용행동은 낮은 수준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재 활용 관련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류재판매 성향은 한달 의류비 지출액수가 가장 낮은 집단, 즉 10만원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의류지출액수가 많은 경우 의류재판매성향이 낮았다. 결국, 의류재 판매는 의류지출액수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의류 소유 갯수가 중간인 소비자 집단(31개에서 40개)이 의류재판매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의류를 많이

소유한 집단이 재판매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의류를 적게 가지고 있는 소비자 또는 많이 가진 소비자보다는 중간인 집단에서 재판매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안 입는 옷을 버리는 의류 폐기행동은 연구에서 사용한 어떤 변수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의류폐기 행동은 소비자의 특성에 이해 좌우되지 않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표 3> 환경친화적 의류 처분행동의 차이 검증

변수	구분	의류 재활용			의류 재판매			의류 폐기		
		평균	t/F값	D	평균	t/F값	D	평균	t/F값	D
성별	남성	6.64	-3.78 ***		1.64	1.67		2.87	.56	
	여성	7.73			1.44			2.78		
결혼 여부	미혼	6.91	-4.68 ***		1.57	1.25		2.81	-.29	
	기혼	8.72			1.40			2.86		
취업 여부	취업	7.44	.57		1.56	.47		2.83	.06	
	비취업	7.23			1.50			2.8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34	2.61 *		1.56	.23		2.92	.53	
	대졸 이상	7.16			1.52			2.81		
연령	18~29세	6.86	9.63 ***	a	1.55	.18		2.82	.20	
	30~39세	8.50		b	1.56			3.00		
	40~49세	9.40		b	1.40			2.70		
	50세 이상	8.57		b	1.53			2.86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6.89	.97		1.89	1.81		2.86	.24	
	101~200만원	7.23			1.69			3.00		
	201~300만원	7.67			1.50			2.86		
	301~500만원	7.35			1.38			2.73		
	501만원+	8.35			1.35			2.78		
가계 지출	100만원 이하	7.26	.27		1.60	1.15		2.81	.28	
	101~200만원	7.62			1.43			2.89		
	201~300만원	7.71			1.21			2.57		
	301만원+	8.00			2.00			2.50		
의류비 지출 액수	10만원 이하	7.54	.39		1.80	3.34 *	ab	2.60	1.78	
	11~20만원	7.15			1.50			3.21		
	21~30만원	7.83			1.37			3.05		
	31~50만원	7.12			1.28			2.62		
	51+	6.85			1.15			2.57		
의류 소유 갯수	20개 이하	7.53	.34		1.65	1.99 *	ab	2.97	1.05	
	21~30개	7.02			1.63			2.56		
	31~40개	7.37			1.70			2.93		
	41~50개	7.66			1.35			2.71		
	51+	7.35			1.23			2.88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참고: 의류재활용의 경우 3개 문항(의류재활용 합상자, 친지/남에게 줌, 자선기관 기부), 5점 리커트 척도,

참고: 의류 재판매 및 유기는 각 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3.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분류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유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구매행동유형을 결정할 것으로 사료되는 15개 질문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소비자구매행동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후 4개 구매행동 요인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타당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과다구매 요인의 내적 타당도는 0.76, 충동구매 요인은 0.77, 구매자제 요인은 0.64, 계획구매 요인은 0.54로 나타났고, 4개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 분산은 65%로 밝혀졌다.

다음 단계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요인에 따라 유사한 구매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수행된 요인분석 결과로 추출된 4개의 요인을 가지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

<표 4> 소비자 구매행동유형 측정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내용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Cronbach's a	
요인 1	과다구매 요인	· 옷이 많아 옷장이 부족하다.	.563	2.873 (20.95)	.76
		· 옷장에 옷이 많아도 외출할 때 입을 옷이 없다.	.728		
		· 못 입을 옷을 남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558		
		· 나는 옷을 자주 사는 편이다.	.805		
		· 거의 입지 않는 옷이 많다.	.767		
요인 2	충동구매 요인	· 내 옷을 사는 것으로 남편/부모님과 다른 적이 있다.	.715	2.246 (17.03)	.77
		· 옷을 산 후 잘 못 사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	.703		
		· 시간이 나거나 우울하면 옷 구경을 간다.	.776		
요인 3	구매자제 요인	· 유행 지난 옷은 디자인을 고치거나 수선을 해서 입는다.	.619	2.001 (15.50)	.64
		· 유행이 바뀌므로 신유행 옷을 자주 구매하지 않는다.	.573		
요인 4	계획구매 요인	· 옷 구매전 소장한 옷 종류, 색상, 디자인을 확인한다.	.576	1.860 (11.62)	.54
		· 구매 전 옷장에 안 입는 옷이 있는가 확인한다.	.682		
		· 나는 자주 과거 옷 구매를 평가한다.	.661		

참조: 요인분석결과의 전체 설명력은 65.12%임.

<표 5> 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및 의류 관련 특성의 차이검증

특성	구분 (빈도)	합리적구매형 (n=36/17.6%)	알뜰구매형 (n=30/14.7%)	구매후회형 (n=70/34.3%)	과다구매형 (n=68/33.3%)	χ^2/F 값
성별	남성	24(26.3)	15(16.5)	29(31.9)	23(25.3)	10.39 **
	여성	12(10.7)	15(13.4)	40(35.7)	45(40.2)	
기혼	미혼	8(6.6)	10(8.1)	47(38.5)	57(46.8)	5.80
	기혼	28(34.6)	20(24.7)	22(27.1)	11(13.6)	
취업	비취업	22(19.7)	16(14.3)	37(33.0)	37(33.0)	.71
	취업	14(15.2)	14(15.2)	33(35.9)	31(33.7)	
학력	고졸 이하	7(17.9)	10(25)	13(33)	9(24.1)	5.54
	대졸 이상	29(18.2)	19(12.0)	54(34.0)	57(35.8)	
연령	평균	30.64	31.67	25.94	26.28	4.32 **
	D	b	b	a	a	
가족 수	평균	3.69	3.60	3.57	3.85	.79
	D	a	a	a	a	
자녀수	평균	1.88	2.00	1.71	1.93	.52
	D	a	a	a	a	
가계 총소득	평균	256.00	333.50	277.80	305.00	.68
	D	a	a	a	a	
가계 총지출	평균	109.77	114.00	110.25	129.16	.42
	D	a	a	a	a	
의류비 지출	평균	20.13	14.80	16.08	30.63	5.08 ***
	D	a	a	a	b	
의류 소장 수	평균	37.39	30.82	33.18	50.60	4.97 ***
	D	a	a	a	b	

***p<.001

참고: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참고: 괄호안 숫자는 %임.

시하였다. 적절한 군집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나무그림(dendrogram)으로 전체적인 data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한 결과 최종적으로 군집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군집의 수를 4개로 정한 뒤, 비계층적 군집방법인 K개 평균연결법(K-Mean)방법을 실시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4개 집단들의 명명 및 특성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3. 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검증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소비자를 4개 집단으로 분류한 이후 이들 소비자 집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χ^2 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분포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 소비자가 여성 소

비자에 비해 합리적 구매형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성 소비자는 구매후회형과 과다구매형에 속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여성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합리적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분류한 소비자 집단이 기혼여부, 취업여부, 대졸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4개 소비자 집단이 등간척도로 측정된 의류소비 관련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 의류지출액수, 의류 소유 개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리적 구매형과 알뜰구매형 집단에 속한 소비자의 연령이 구매후회형과 과다구매형 소비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높은 연령층 소비자들이 나이가 적은 젊은 소비자들보다 합리적 소비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구분한 4개의 소비자 집단은 가족 수, 자녀 수, 가계총소득, 가계총지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표 6> 소비자 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친환경 의류 소비생활의 차이검증

		합리적구매형 (n=36/17.6%)	알뜰구매형 (n=30/14.7%)	구매후회형 (n=70/34.3%)	과다구매형 (n=68/33.3%)	분산분석 (F 값)
구매행동						
중고의류구매	평균	1.44	1.70	1.64	1.33	2.95 *
	D	ab	b	ab	a	
의류 대여	평균	1.47	1.63	1.68	1.45	1.33
	D	a	a	a	a	
비합리적 구매성향	평균	8.25	8.10	8.65	9.10	2.90 *
	D	a	a	b	c	
사용 및 관리						
의류 사용 및 관리행동	평균	17.50	19.28	17.76	20.14	3.69 *
	D	a	b	a	c	
처분행동						
의류 재판매	평균	1.52	1.56	1.50	1.47	.10
	D	a	a	a	a	
의류 재활용	평균	6.91	7.43	7.48	7.36	.42
	D	a	a	a	a	
의류 폐기	평균	3.08	2.63	2.81	3.77	2.92 *
	D	a	a	a	b	

*p<.05, **p<.01, ***p < .001

참고: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참고: 비합리적 소비행동은 3개 문항(충동성, 후회, 과다구매), 5점 리커트 척도.

참고: 의류재활용의 경우 3개 문항(의류재활용 합상자, 친지/남에게 줌, 자선기관 기부), 5점 리커트 척도.

참고: 의류사용 및 관리는 7개 문항(사전세탁, 다림질, 관리점점, 줌약, 옷장정리, 사전손질)의 5점 리커트 척도.

났다. 한편, 4개 유형의 소비자 집단의 의류비 지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다구매형 집단의 의류지출이 매우 높았으며, 동시에 소유한 의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비자 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친환경적 의류소비생활의 차이검증

소비자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구분한 4개 소비자 집단의 친환경적 의류 구매, 사용 및 관리행동, 처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그리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친환경적 구매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자. 중고의류 구매성향의 경우 알뜰구매형 소비자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다구매형의 중고의류 구매성향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 의류를 많이 구매한다는 것은 중고가 아닌 새 옷을 많이 구매한다는 의미임을 확인케 한다. 한편, 소비자의 의류 대여행동은 네 개의 소비자 집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합리적 소비성향은 3개 문항, 즉 충동성, 후회, 과다구매성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분석결과 네 유형의 소비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다구매형 집단의 비합리적 구매성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구매후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구매형과 알뜰구매형의 경우 비합리적 성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류의 친환경적 사용 및 관리 행동에 있어서는 과다구매형 소비자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알뜰구매형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구매형과 구매 후회형집단의 사용 및 관리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소비자는 의류관리 지출을 적게 하고, 구매를 후회하는 소비자 집단도 구매한 그 옷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류의 사용 및 관리 행동 변수가 주로 수선, 손질, 줌약, 세탁이나 드라이 등 돈이 들어가는 소비 지출행동과 연관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의류의 친환경적 처분행동인 재판매, 재활용, 폐기행동이 소비자집단에 따라 폐기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다구매형이 다른 소비자 집단에 비해 필요없는 옷을 쓰레기로 버리는 폐기행동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다구매가 과다쓰레기를 유발한다는 상식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의류 재판매나 재활용 행동은 네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류소비생활을 구매, 사용,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친화적 성향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류 구매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소비자를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친환경적 의류 구매, 사용 및 관리, 처분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생활에 대해 기초조사를 수행한 결과 중고의류 구매성향과 의류 대여성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및 관리행동의 경우 세탁/드라이 보관 수준은 다른 행동보다 높았으나 수선행동 수준은 가장 낮았으며 관리상태 점검행동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처분의 경우 폐기행동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의류 재활용상자 사용이나 친지, 주변에 의류를 주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재판매행동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석결과를 통해 수선을 통한 재활용이 필요하며, 아직도 재활용보다는 폐기행동이 많고, 의류의 재판매나 중고 의류구매 및 대여행동은 매우 저조하여 이를 개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고소득 소비자와 옷을 많이 소유한 소비자는 중고의류 구매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의류 구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혼자,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소비자가 옷을 자주 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의 경우 여성, 기혼자,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소비자의 의류관리행동 수준이 높았다. 40대,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계, 가계지출이 200만원 이상인 가계, 의류지출액수가 가장 높은 수준인 50만원 이상인 가계, 소유한 의류 갯수가 40개가 넘는 경우 의류 사용 및 관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중고의류 구매 및 의류 대여행동과 마찬가지로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은 경제적 특성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의류 재활용 수준은 여성, 기혼, 고졸, 30대 이상 소비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재판매 성향은 의류비 지출액수가 낮은 집단 그리고, 의류 소유 갯수가 중간인 집단(31개에서 40개)에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 재활용 수준은 여성, 기혼 소비자, 고졸 이하 소비자, 20대보다는 30대 이상 소비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종합하면, 의류의 친환경적 구매행동인 중고의류 구매와 의류의 사용 및 관리행동은 대체로 경제적 특성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재활용

행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폐기 행동은 어떤 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분류한 소비자집단의 친환경적 의류소비생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알뜰구매형 소비자의 중고의류 구매성향이 높았고, 과다구매형 소비자의 중고의류 구매성향은 가장 낮았다. 의류의 사용 및 관리 행동에서는 과다구매형 소비자 집단이 가장 높은 의류관리행동을 보였고, 알뜰구매형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행동인 재판매, 재활용, 폐기 행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과다구매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의류를 쓰레기로 버리는 폐기행동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다구매형은 비합리적 구매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의류의 사용 및 관리 그리고 폐기 행동이 높은 성향을 보이는 반면, 알뜰구매형은 중고의류 구매성향이 높고, 구매후회형은 의류 사용 및 관리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결과들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의류소비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의류구매 및 의류대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또한 중고 및 대여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때,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중고의류 구매 및 대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적 동기를 강조하는 전략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 부여, 사회복지 및 후생 강조의 모델이 필요하다. 중고의류 구매 및 대여가 일상생활로 정착되기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의류중고시장 및 대여시장, 유통체계 등에 대한 조사,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둘째,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유형을 친환경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과다구매 한 의류를 재판매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 정착, 대여 시장 확대, 수선 및 수리를 통한 재사용 등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과다구매자를 양성시키는 의류 관련 홍보, 광고, 전시회 등의 마케팅을 자제하고, 지나친 유행 창조 및 의류의 계획적 진부화를 과열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회,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원료를 사용한 의류제품(예: 옥수수를 원료로 한 옷감) 생산의 활성화, 의류산업 전 과정에서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류 소비생활 분야에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가구, 장식용품, 가전제품, 자동차, 미술품 분야의 경우 오래된 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추억과 의류 문화가 결들인 오래된 의류의 귀중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나 형제가

입었던 옷, 내가 어린시절 또는 과거에 입었던 의류에 대한 귀중함 또는 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나 가치가 형성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그동안 연구되어오지 않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과 의류의 구매, 사용, 처분 단계에서 친환경적 행동을 연결시켜 그 관계를 조사·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편의표집 하였고, 서울 및 근교에 거주하는 소비자 층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겠다. 또한, 본 연구를 계기로 구매행동유형과 친환경행동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겠다.

- 접수 일 : 2007년 01월 15일
- 심사 일 : 2007년 02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2월 27일

【참 고 문 헌】

구자명·이명희(1999). 성인여성의 가치의식과 의류쇼핑성향 및 의류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1), 35-45.

김병미·이재명(1997). 착용하지 않는 의류의 처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환경보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2), 19-32.

김시월·이명숙·이혜임·권오정·이진영(1998). 소비생활과 재활용(I). **대한가정학회**, 36(9), 107-125.

김시월·조향숙(2000). 의류재활용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미혼 취업여성의 사장의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5-28.

김용숙(1995). **의류제품 전과정 관계자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 행동**.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노영래·김시월(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 재활용의식과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 미혼취업여성의 사장의류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163-178.

박광희(1998).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환경보존적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9(2), 65-77.

박화순·서영숙(1998).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의생활 행동과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0), 79-87.

배정숙·조은영·박은희(2001). 성인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류의 세탁관리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6), 1-14.

신수연·박재욱(1999). 백화점 주고객층의 쇼핑성향, 점포속성 중요도, 자기 이미지에 따른 의류구매성향. **한국의류**

- 학회지, 23(6), 841-852.
- 유명익·안혜자(2001). 의류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 연구*, 4(1), 107-126.
- 유연실(1996). 성인 여성의 의류폐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 학회지*, 20(1), 142-156.
- 이춘희(1995). 소비자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류관리행동과 의류 자원 재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혜(1996). 사회 책임적 의류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경옥(2004). 소비자 구매행동유형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환경친화적 행동. *한국생활과학회*, 13(4), 569-579.
- Francis, S. L., Butleer, S. L. & Gallett, K. S.(1995). Disposition of donated clothing: An ecological concer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fall, 25-30.
- Hawley, J. M.(2000). Textile recycling as a system: A micro/macro analysi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2(4), 40-43.
- Shim, S. & Koh, A.(1996). Profiling adolescent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effect of socialization agents and social-structural variables. *Journal of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16(1), 22-29.
- Sproles, G. B. & Kendall, E.(1986). A methodology for profiling consumers'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2), 267-279.
- Westbrook, R. A. & Fornell, C.(1979). Patterns of information source usage among durable goods buye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 303-312.